

01 교회소식

영원히 살아갈 그 곳 ...

전 세계 곳곳에서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책자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영계의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03 권능의 역사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온갖 질병뿐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병까지 능히 해결받을 수 있다.

04 간증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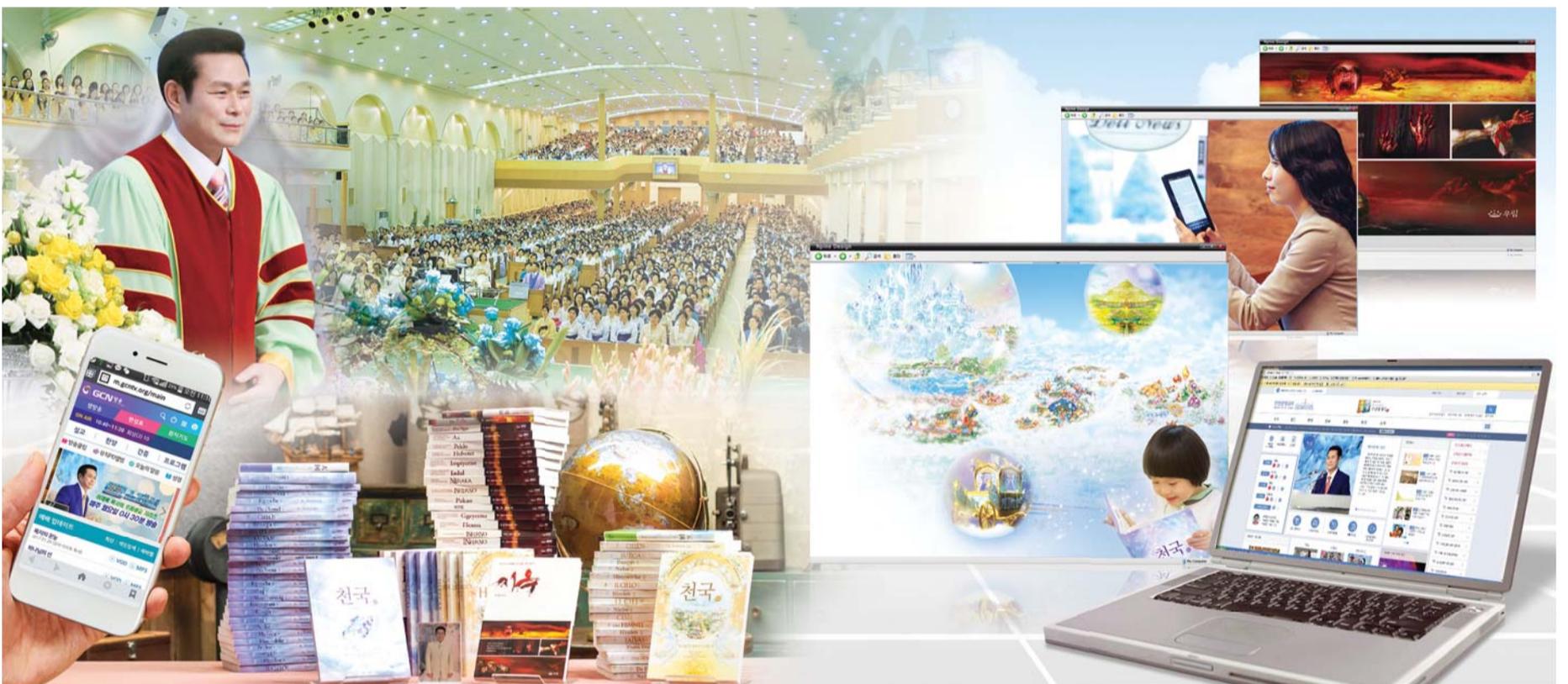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체험한 안장석 장로와 인태의 축복을 받은 인도 개마파 성도, 시력이 좋아진 김성규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786호 2017년 4월 3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천국’과 ‘지옥’ 설교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몸은 장사되어도 영혼은 불멸하기에 또 다른 공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아름다운 천국 또는 참혹한 지옥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7년간의 병고 끝에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은 이재록 목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뒤 영혼 구원을 위해 무수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1984년 5월부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에덴동산과 천국의 대기 장소,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영혼이 들어가는 낙원을 비롯해 성결한 마음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분량대로 들어가는 천국의 각 처소와 상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기 시작하였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천국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1차 30편, 2차 59편의 시리즈로 설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주셨다. 이후 이재록 목사의 ‘천국’과 ‘지옥’ 설교는 책

자와 방송,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며 변화와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대만만민교회 최이쓰션 성도(여, 35)는 “전도되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는 결국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 정욕을 끊고 기도하고자 힘쓰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천국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녀는 참된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에게도 전해 가정이 복음화되었으며, 중증 치매에 걸려 고통받던 아버지가 이재록 목사의 사진 기도로 치료받아 정상이 되는 등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았다.

러시아어 위성방송인 TBN 러시아에서 이재록 목사의 ‘지옥’ 설교를 시청한 동유럽 몰도바의 알렉산드르 타바라누 형제(32)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당시 저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죄를 지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옥은 불로 달궈진 프라이팬에서 소금이 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은 큰

충격이었지요.” 이후 그는 인터넷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들을 찾아 들은 뒤, 마음의 성결을 사모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급성 폐성심으로 죽어가던 그의 모친 따지아나 타바라누 성도는 예배 동영상 통해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소생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조순자 집사(여, 63)는 유튜브를 통해 ‘지옥’ 설교를 듣고 말씀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에 무척 놀랐다. 그 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영적 충만함을 얻은 그녀는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길을 가면서도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을 것”이라며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이 목사의 설교 말씀으로 구역공과를 인도하며 말씀의 떡을 나누고 있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 주고 계시며, 책으로도 발간된 『천국』(상)(하)와 『지옥』은 전 세계 만민을 위해 각각 32개, 21

개, 34개 언어로 번역 발간되었다.

책자는 국내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넷 서점 Yes24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을 비롯 미국 도매점 베이커앤테일러, 기독교 도매점 앵커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아마존 킨들, 애플 아이북스, 구글 플레이북스 등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한 독자는 세계 최대 서평사이트인 굿리드닷컴(goodreads.com)에 “이 경이롭고 힘 있는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이 빼앗겼다. 이재록 목사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는 대단한 분이다. 에덴동산을 비롯해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천국과 그곳의 정금 길, 구름자동차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드는 천사들 등 천국의 생활과 시설이 잘 설명되어 있다.”라고 서평을 남겼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는 59편의 ‘천국’ 설교와 1차 13편, 2차 21편의 ‘지옥’ 설교를 동영상, MP3,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을 지불하면 반드시 그 땅을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무르는 법칙 안에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팔고 사는 법은 근본 흠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직접 관계되는 영계의 법칙입니다(창 3:19, 23).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아담과 그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영히 팔 수 없지요.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모든 권세를 넘겨주었다 해도 장차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근거하여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살펴볼까요?

2.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른 구세주의 자격 조건

첫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토지를 팔았을 때 근족이 되찾아 올 수 있듯이(레 25:25), 짓값으로 원수 마귀 사단에게 팔린 사람을 대속할 이도 반드시 아담의 근족이어야 합니다.

아담의 근족이라는 것은 아담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곧 사람을 말하지요. 천사나 짐승은 우리 사람의 짓값을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한 대로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대신 져 줄 수 있는 존재도 반드시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했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

름,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외모와 성격뿐 아니라 죄성까지 물려받습니다. 젓먹이 아이도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젓을 물리더라도 하면 이내 그 아이를 엄마 품에서 밀쳐내려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무도 미움이나 시기, 질투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죄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눅 1:26~38). 남녀의 결합으로 잉태된 사람은 모두 조상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셋째,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동료를 구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하듯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도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설령 행함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죄라 여기시지요(마 5:28 ; 요일 3:15). 그러나 아담의 후예 중에는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넷째,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형이 동생의 빛을 갠 줄 능력이 있는 재벌이라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흉악한 죄인처럼 정죄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 된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참으로 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 처형도 기꺼이 받으셨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인(聖人)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는 물론 자신의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요 14:6).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영계의 법칙에 따라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 대신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아무나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영계의 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일까요?

1.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토지 무르기 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 법이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토지거래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25장 23~25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난하여 토지를 팔게 될 경우, 언제든지 근족이 대신 토지의 값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언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응답받고 축복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본다.

“폐렴으로 인한 늑막염이 사라졌습니다”

이광우 집사 (44세, 2대대 11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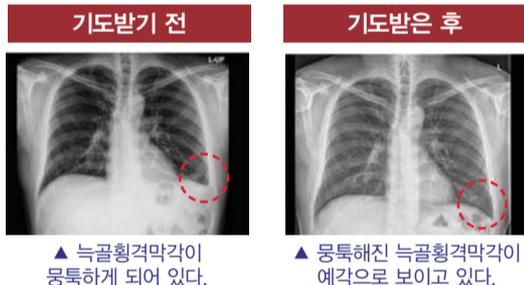
2017년 2월 9일(목),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통증이 느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기침을 할 때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11일(토)에는 통증이 최고조에 달해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밤을 샜지요. 새벽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은 뒤에는 통증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12일(주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희선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뒤에는 아팠던 부분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날 밤은 편히 자고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3일(월) 아침,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하였는데, 의사는 폐렴이 10일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폐렴으로 인한 늑막염이 있으니 입원치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늑막염은 약물치료 없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저는 믿음으로 온전히 치료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철야 때 기도하면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불편함, 서운함 등의 감정과 미움 등의 죄성들을 발견하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지낼 수 있었지요.

17일(금), 병원 검진 결과 의사는 “폐렴도, 늑막염도 아무 소견이 보이지 않고, 늑막염에 걸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극심한 우울증 증세가 깨끗이 치료되었어요”

신디아 맥밀란 집사 (57세, 호주 시드니만민교회)



2016년 7월 말, 저는 목돈을 사기 당한 사실을 안 뒤 우울증이 생겨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밤낮 눈물로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너무 슬프고 괴로워 잠을 못 자니 급속히 살이 빠지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저는 담임 배승환 목사님의 권유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뵙고자 10월 초, 만민중앙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당회장님과 악수할 기회가 있었고, 기념예배와 모든 축하행사가 은혜롭고 감동이 되어 저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황홀하였지요.

이후 호주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우울증 증세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니 불면증이 사라지고 이제는 재정의 축복도 받아 빛을 많이 갠아 나가고 있지요. 하루하루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42년 만에 귀가 들립니다”

곽정님 권사 (64세, 새광주만민교회)



스물한 살 때, 목에 혹이 있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목, 귀의 신경선이 손상되어 이후로 밤낮없이 귀가 붕붕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에 가 보았지만 한 번 손상된 신경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한 생활을 혼자 감내하며 아무한테도 내색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2016년 3월,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사모함으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갑자기 왼쪽 귀에서 ‘윙~’ 하고 모기 소리가 났지요. 옆에 앉은 집사님에게 모기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하니 무슨 모기가 있겠냐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윙~’ 하는 소리가 나서 모기를 쫓기 위해 손으로 귀 옆을 확확 저었지요.

또다시 세 번째로 귀에서 ‘윙~’ 하더니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귀가 펑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당회장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제 귀의 청력이 42년 만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15년 된 발작성 호흡곤란, C형 간염 등 온갖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첸드수렌 성도 (36세, 몽골만민교회)

2011년, 저는 C형 간염에 걸리고 신장과 심장, 비장의 기능마저 약해져 큰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계단을 오를 때에는 숨이 차올라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지요. 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아보고 음식도 조절해 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11월, 몽골만민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저는 발작성 호흡곤란을 치료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밤에 호흡곤란이 허다하게 일어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발저릭 선교사님에게 기도받고 단번에 치료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믿어졌고, GCN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지난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2016년 12월, 저는 결단하며 31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입으로 조금씩 피가 넘어왔지만 힘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잘 마칠 수 있었고, 금식을 마친 뒤에도 피가 조금씩 넘어왔지만 전혀 염려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8일, 교회 손수건 집회 시 기도받은 뒤로는 이 증상이 점차 사라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병원 검진 결과, C형 간염이 치료된 것은 물론 신장, 심장, 비장까지 모두 정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5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4.30~5.6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참 마음 ▪ 일곱 영 2-3
- 천국 48-50 ▪ 지옥 1-5
- 믿음의 분량 4-8 ▪ 사랑 1-2
- 십자가의 도 1-3
- 2차 영혼육 13-15
- 요한계시록 강해 76-83

GCN TV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1 (이수진 목사)
- 순종의 축복 (이미경 목사)
- 목자님의 열매 3 (이희선 목사)
- 선 5 (신동초 목사)
- 출애굽과 홍해 사건 (정구영 목사)
-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구혁신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0
- 권능 스페셜 14 ▪ 마지막 때 11
- 창조와 과학 10 ▪ English 9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1
- 내 마음의 찬양 11
- 모두 드려요 37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4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0

전국 어디서나

alleg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TV

LG에서 임원으로 23년을 근무한 뒤 일본 반도체 회사의 개발본부장으로 일하던 저는 9년째 되던 지난 2016년 9월 말, '2017년 4월 이후의 재계약은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의 흐름이나 회사의 경영 상황이 한국시장에서 불리하게 전개되어 임원진 교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지요. 저는 그동안 쌓은 인맥과 헤드헌터 회사를 활용하고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원하는 수준의 제안은 없었고 2017년 1월부터 지인이 경영하는 벤처기업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켜 보니 당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제가 하려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월 20일부터 시작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진로에 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안장석 장로 (57세, 2대대 18교구)



한 구체적인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42일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 다니엘철야 3주째가 마쳐지는 시점에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서류 및 면접 결과, 제 스펙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라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보류되었지요.

저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 다니엘철야 마지막 주 40일째 되는 날, LG전자의 방계 부품업체 중 코스닥에 상장된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한 회사로부터 총괄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게 모든 조건을 정하라고 배려해 주었고, 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해 주어 4월 1일부터 취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평생 임신할 수 없었는데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임마가 되었어요”

꺼비따 성도 (25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2013년 3월, 저는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아이가 유산되고, 그 뒤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 “안타깝지만 평생 임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불임의 원인도 모르겠다는 의사의 말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남편은 저를 위로하며 더 유능한 의사에게 상담해 보자고 하여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제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져 더 이상 삶의 희망도 찾지 못했지요. 불임클리닉에 다니는



▲ 언니, 형부, 조카들과 함께한 꺼비따 성도 가족(왼쪽부터 남편과 딸, 꺼비따)

라 부채는 쌓여갔고, 비참한 현실에 밤낮 울며 지내다가 만성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희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에 대해 전해주며 저도 기도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몸은 너무 쇠약해져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자꾸 쓰러졌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 겨울, 가족의 도움을 받아 델리만민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담임 김상휘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곧바로 음식을 먹게 되었고 몸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그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좋은 하나님과 주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을 전하니 가족과 친척들이 전도되었습니다.

이처럼 행복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중,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6년 3월 중순,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연락해 당회장님께 임태를 위한 기도를 받았는데 한 달이 채 안 돼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올해 1월 19일, 예쁘고 건강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이 회사에서 받지 못하던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빚도 모두 청산하였지요. 이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시력감퇴, 만성두통을 치료받고 시력도 좋아졌습니다”

김성규 집사 (46세, 1대대 2교구)

20대 초반, 자동차 정비를 하던 중 응접 불꽃이 오른쪽 눈에 튀는 사고가 있던 후 제 시력은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먼 곳을 보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증상이 밤낮으로 찾아와 머리가 몹시 아팠고, 그러다 보니 왼쪽 눈도 덩달아 시력이 떨어져 좌우 시력이 0.8/0.2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고, 양안의 시력 차이가 크다 보니 늘 두통에 시달렸지요. 무엇에 집중하여 보는 것이 힘들었고 책을 읽는 것도 어려웠으며 어두워지면 더 잘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꼭 치료받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2016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저는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례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은 뒤, 시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 뒤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과 달리 모니터에 자막이 선명하게 보였고 밤에도 사물이 잘 보였지요.

10월 21일, 시력 측정 결과 좌우 1.2/0.7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시력이 0.8/0.2에서 1.2/0.7로 각각 2단계 이상 좋아졌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1)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동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대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김춘호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88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